

서호인의 '소설처럼'



가만히 묻는 소설 - 김세희 '가만한 나날'

밀레니얼 세대는 말은 세계적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그 특징과 실제 사례가 잘 띄어 잘 맞는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출생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은 고학력 세대이다. IT 기기에 SNS 등의 인터넷 환경에 지극히 익숙하다. 금융 위기 전후로 사회에 진출하였기에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체념적으로 받아들인다. 때문에 결혼과 출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쉽게 그것들을 포기한다. 대신 개인적 삶의 만족도, 다시 말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특성의 청년을 만나러 뉴욕이나 런던까지 인터뷰를 떠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서울 시가지 어디거나 경기도 신도시 어디쯤에 혹은 광주 같은 지역 도시의 한쪽에 그들은 존재한다. 그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그것이다. 저경력 대졸을 신칭하는 신혼부부나 비정규직 및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다. 당신 주변에 있는 그들이 바로 밀레니얼 세대다. 새로운

천 년의 희망을 안고 태어났지만, 앞 세대보다 가난한 확률이 높을 유일무이한 세대.

2015년 등단하여 최근 첫 번째 소설집 '가만한 나날'을 상재한 작가 김세희 또한 1987년생으로 밀레니얼 세대에 속한다. 그리고 그의 소설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기라 할 만하다.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수상작이기도 한 표제작 '가만한 나날'은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에 말단으로 취직해 제품을 홍보하는 일을 맡은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가 술하게 올린 포스팅 중 하나가 공교롭게도 '가습기 살균제'에 관련된 것이지만, 누구도 가습기 살균제가 사립을 죽이거나 병들게 할 것이라 예상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약간의 죄의식,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자각이다.

그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역시 책에 수록된 소설 '드림팀'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일 팀장이 등장한다. 팀장은 진정한 워커홀릭이면서, 워킹맘이다. 사무

실에서 늘 곤두서 있고, 야근은 일상이 되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 근데 자기도 알잖아.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 주인공은 팀장에게 회사 일과 사회생활의 거의 모든 것을 배웠지만 그와 비슷한 크기와 질량의 상처를 받았다.

밀레니얼 세대는 선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 한다. '감정 연습'에서는 그렇게 되어 가는 사람들이 복수로 등장한다. 북한과 가까운 파주에 근무하는 사람들, 북한의 위협이 농담으로 쓰일 만큼 전쟁 불감증이지만 실제로는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청년 세대의 지독한 불안. 그들이 연는 없었다. 그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에게 남은 것은 약간의 죄의식,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자각이다.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선배들은 쉽게 말한다. 눈높이를 낮추라고. 어떤 선배들은 준엄하게 충고하기도 한다. 진짜 어려움을 모

른다고. 하지만 이미 그렇고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린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 세대의 고통과 불안이 있음을 '가만한 나날'은 여덟 편의 소설로 넉넉히 보여준다.

언제 잘려도 이상하지 않을 직장, 그 직장을 다니기 위해 어렵게 얻은 두 평짜리 고시원, 집세를 야끼기 위해 결핵한 동거... 이들에게는 반성을 하고 싶지만, 죄의식을 나눌 선배는 없고, 꿈을 찾고 싶지만 길을 알려 주는 멘토도 없다. 이러한 세대에 '밀레니얼'이라는 화려한 수식어는 차라리 극대화된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세계화와 금융 위기에서 비롯된 밀레니얼의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결국 '그런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건 슬픈 일일 테지만, 지금의 청년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들이 비겁하거나 패기가 없어서이기보다는 이미 그렇고 그런 기성세대의 책임이 큰 것이다. '가만한 나날'은 가만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책임을 나누어 묻는 소설이다.

<시인>

의료칼럼

낙침(落枕)



김재홍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교수

요즘 들어 부쩍 아침에 자고 난 뒤 목을 돌릴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목이나 어깨를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목을 좌우로 돌릴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을 느낀다면 '낙침(落枕)'일 가능성이 높다.

'낙침'은 목이 뻣뻣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급성 병종의 일종으로 '경부상근(頸部傷筋)'이라고도 한다. 우리가 흔히 '담에 걸렸다'고 표현하는 서양 의학의 '근막 통증 증후군'과 비슷하다. 목 근육의 섬유 조직이나, 목뼈가 비대함으로써 생기는 사경(斜頸 목 부분의 근육 연속으로 머리가 기울어짐)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낙침이 발생하면 통증 때문에 업무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면, 화장실 사용에도 많은 불편을 겪는다. 환자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다양하다. 심하면 목을 앞뒤로 숙이고 찢거나 좌우로 돌리는 동작조차 할 수 없다. 목을 조금만 돌려도 목 주변 근육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고정 붕대를 한 것처럼 목을 뻣뻣이 들고 있어야 그나마 통증이 나아질 만큼 심한 경우도 있다.

낙침은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과 어깨 주위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발생한다. 찬 곳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 추운 날씨에 어깨에 힘을 주고 웅크린 자세로 다닐 때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두껍고 무거운 외투는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낙침을 유발한다. 장시간 컴퓨터 사용과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처럼 낙침은 잘못된 생활 자세에서 비롯되는 만큼 평소에도 조그만 조심하면 예방할 수 있다. 높은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등 TV를 보거나, 목을 돌리며 우두독 소리를 내는 습관을 들여서는 안 된다. 평소 목과 어깨를 찜질 팩이나 따뜻한

하게 데운 수건으로 찜질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낙침 예방에 도움이 된다.

한의학에서 낙침은 풍한(風寒-찬바람)에 많이 노출됐을 때, 무거운 것을 머리에 이거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목 주변 근육이 손상돼 기혈이 막히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낙침의 치료는 수양명대장경이나 수태양소장경, 수소양삼초경 등의 경맥을 취혈해 침을 놓거나 손, 기구 등을 사용해 비뚤어진 뼈와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정상적인 위치로 복원시키는 추나 요법을 활용한다.

또 가벼운 목 운동을 처방할 수 있다. 목 운동은 혼자서는 할 수 없고, 한 의원에 가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선 머리를 똑바로 하고 앉은 상태에서 목을 앞뒤로 젖혀본 뒤, 좌우를 쳐다보고, 좌우로 목을 돌려본 뒤 어디쯤 움직일 때 아픈지 확인해 본다. 다음으로 한자가 아팠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힘을 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환자의 목을 아픈 방향으로 돌려준다. 목을 앞으로 숙이면 목 뒤에서 가장 뾰족하게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 부분(大椎-대추라는 혈자리)을 지압해주는 것도 좋다.

다만 낙침이 1년 동안 수차례 발생하거나 어깨 통증과 팔 저림 증상이 있다면 일자 목, 거북 목, 경추 추간판 탈출증(목 디스크) 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 상태에 따라 엑스레이(X-ray)나 MRI 등의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평소에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낙침 예방에 효과적이다.

첫째, 목을 천천히 아래로 최대한 숙인다. 최대한 숙인 자세에서 2~3초간 멈춘 뒤 다시 천천히 뒤로 젖힌다. 뒤로 최대한 젖힌 자세에서 또 2~3초간 멈춘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한다.

둘째, 목을 왼쪽으로 천천히 돌린다. 최대한 돌린 자세에서 2~3초간 멈춘 뒤 다시 천천히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린다. 최대한 돌린 자세에서 또 2~3초간 멈춘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반복한다.

셋째, 어깨를 최대한 웅크리면서 들어 올린다. 갑자기 어깨에 힘을 빼면서 탁탁 떨어뜨린다. 이 동작을 20회 정도 반복한다.

기고

혁신도시 공동 발전 기금, 상생으로 해결하자



윤복식 광주시 행정동우회 자문위원

최근 광주와 전남의 공동 혁신도시 발전 기금 조성을 놓고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말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공동 발전 기금을 내놓는 설전을 벌여 시도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조성 당시 양 시도가 성과를 함께 나눈다는 대원칙과 신뢰 속에 합의를 이루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조성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도 상생 협력 사례다. 이에 따라 나주시와 나주시의회는

2005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지자체 성과 공유 계획'을 제안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를 광주·전남 공동 발전 기금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 장학금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하고 혁신 도시를 나누로 유지했다.

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2006년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개발 운영의 성과 공유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큰 뜻을 정부와 시도민들에게 밝혔다.

이렇게 조성하여 10여 년간 운영하면서 '공동 발전 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전남도와 나주시는 수년동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시도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실추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상생을 강조하며 김영록 전남지사, 강인규 나주시장과 공동 혁신도시 발전 기금 문제를 직접 풀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행정의 대가들이기에 시도간 마찰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시장은 일전 간부회의에서 '최근 광주와 전남 간 상생 협력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광주, 전남은 한 뿌리이며 공동 운명체여서 사안마다 각자 도생하고 경쟁하면 공멸이지만, 함께 손잡고 지혜를 모으면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상생을 강조했다. 특히 '갈등과 분열적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상생 차원에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시도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천년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무쪼록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동 혁신도시 조성의 초심으로 돌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

여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목표를 고 민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의 공동 혁신 도시라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 혁신도시가 어느 한 쪽의 소유물이 아니듯이 제도상 관할 행정 구역에서 징수하지만 여기에서 징수되는 지방세는 양 시·도가 반드시 공동으로 관리, 운용해야 한다.

광주와 전남은 전라도 천년의 한 뿌리요 동반자로서 시도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공동 혁신도시가 조성되었기에 그 기본 취지를 살려 운영 과정에서도 상생 발전하기를 시도민은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아무쪼록 시도민의 거룩한 상생 의지로 설립된 공동 혁신도시가 신성장 거점 도시로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조성 당시의 상생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역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社說

지방의원 겸직 금지 권고 대부분 '나 몰라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의회 의원의 겸직과 영리 거래를 금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광주·전남의 광역 및 기초의회 29곳 가운데 86%인 25곳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그제 발표한 '지방 의회 의원 겸직 및 영리 거래 금지 권고'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동구·서구·광산구 의회 등 세 곳만 이행을 완료했고 남구의회는 일부 이행, 광주시의회와 북구의회는 아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함평군의회만 이행을 완료했고 전남도의회와 21개 시군 의회는 미이행 상태로 조사됐다.

또한 제도 개선을 일부 이행했더라도 겸직 신고 내용과 겸직 현황을 공개하는 등의 핵심 과제는 실행되지 않고 있었다. 전남의 한 시의회는 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겸직 신고서가 한 건도 없어 겸직을 하고도 신고를 안 한 것인지, 실제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

기가 어려웠다. 수의 계약 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경우도 있었다. 전남의 한 지자체와 1600만 원 상당의 수의 계약을 체결한 모 업체는 모 의원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고 겸직 신고한 업체와 회사명·주소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지방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 규정 구체화와 확인 절차 강화, 수의 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 위반 시 제재 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은 지난 2015년 10월이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지방 의회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실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일 터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최근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 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광주를 나눔과 연대의 '자원봉사 도시'로

'자원봉사 선도 도시 광주' 선언식이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었다. 광주시를 비롯해 광주시의회와 시교육청,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5개 자치구 등 모두 9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은 "150만 광주 시민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광주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자원봉사 선도 도시 광주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시는 생활 속에서 자원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 선도 도시 종합발전 로드맵'을 수립해 네트워크 및 기반 강화 등 3개 영역 16개 세부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같은 날 2019 광주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조선태 외국어대, (사) 글로벌 교육선교회와 '대회 자원봉사자 운영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그 동안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2015년)와 광주 비엔날레(2018년) 등 굵직한 행사가 열려 왔다. 이런 행사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는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컸다. 올해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자원봉사 선도 도시 광주' 선언은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 또한 '나눔'과 '연대'로 계엄군에 맞섰다. 이번 선언을 계기로 타 시도에 앞서가는 선도적인 자원봉사 문화가 광주에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광주시 등 9개 기관은 물론 시민 및 자원봉사자 간의 협조가 절대적일 것이다. '광주 정신'이 시민의 일상이면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113일 앞으로 다가온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광주 정신'을 몸소 보여 주는 자원봉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러졌으면 한다.

無等鼓

"저 브런치 콘서트 팬이잖아요. 패키지 끊어서 자주 다니고 있어요." 며칠 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만난 그녀는 막 끝난 '코리안 솔로이스츠' 공연의 감흥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듯했다.

그녀처럼 언제부턴가 한 달에 한 번 '오전 11시'를 손꼽아 기다리는 이들이 생겼다. 11시부터 클래식,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해설과 함께 감상하고 간단한 음식으로 점심 식사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선두 주자는 지난 2014년 시작된 'ACC 브런치 콘서트'(티켓

가격 2만 5000원). 패키지 상품은 일찌감치 매진됐고, 콘서트마다 빈자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매 공연마다 예매장이 열리면 재빨리 클릭해야 한다. 브런치 콘서트의 장점은 화려한 라인업이다. 올해는 반도네 연주자 고상지, 배철수 음악 캠프 작가 배순탁, 지휘자 서희태 등이 참여해 15차례 무대를 장식한다. 공연 후 제공되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즐기는 것도 작은 즐거움 중 하나다.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공연의 감흥은 더 오래 남는다.

'오전 11시의 행복'

도시락을 함께 먹고 미술 강좌를 듣는 행사도 시작된다. 광주시

미술관이 27일부터 시작하는 '런치 토크'(무료)는 전시와 연계한 강의를 듣는 기획으로 낮 12시에 시작한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이 스타트를 끊고 장석원 평론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공연 감상 후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다. 멀리 갈 것 없다. 오전 프로그램이 열리는 세 장소 모두 지역의 대표 문화아지트로,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공간 자체를 구성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전시도 '오전 11시의 작은 행복'에 빠져 보시길. /김미은 문화부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FAX 222-800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1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문 화 부 220-0632	(FAX 222-0195)	(FAX 222-0195)	
문 화 부 220-0663	제 목 부 220-0692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문 화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문 화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국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